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당에 제하다

題草堂

비틀비틀 바람 먼지 불어올 적에 蹭蹬風塵際
가만히 수죽(水竹)의 사이에 산다. 棲遲水竹間
이름 지위 늦었다고 감히 논하다 敢論名位晚
터럭이 시어짐을 한갓 깨닫네. 徒覺鬢毛斑
맑은 시내 돌을 쌓아 보를 막고서 堰石留清澗
창 열어 먼 데 산을 방에 들이네. 開窓納遠山
시 짓기를 다시금 일과로 하니 小詩還自課
사는 일이 한가로운 것만 아닐세. 生事未全閑

중양

重陽

좋은 시절 저버림 마땅치 않아 令節不宜負
아침부터 가을 흥취 거나하도다. 朝來秋興長
담근 술도 간밤부터 마침 익었고 酒從前夜熟
국화는 옛 동산의 향기 뿜는다. 菊是故園香
율리(栗里)의 울타리서 술에 취하고 栗里籬邊醉
용산(龍山)의 좌중에서 광태 지었지. 龍山座上狂
신교(神交)를 아득한 곳에 부치니 神交付冥漠
시대가 다르대서 잊을 수 있나. 異代可相忘

수필

다문화시대

권 태 하(작가, 검교공파 33세)

고향에서 날아온 어릴 때 친구의 청첩장을 받아서 펴 보니 며느리가 될 사람 이름이 베트남 사람 이름 같았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보아도 그 친구 아들 장가이면 무척 늦은 결혼인데 몇 해 전에 시제 때 우연히 산길에서 만난 그 친구의 큰아들이 촌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한다더니 아마도 그 아들이 이제에서야 배필을 맞아 장가를 가는가 보다.

마흔이 넘은 자식을 장가보내는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모처럼 고향에 내려가 고향친구들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아 부조봉투라도 전하려고 결혼식에 내려 갈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양반가문이 뭐 그리 대수라고 자존심을 세워서 외국며느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닦달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될 일을 왜 그때 친구들이 권할 때는 그토록 화를 내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농사도 크게 하고 살림도 넉넉하니 다욱 더 그리하였을 터이지만 몇 해 전에 친구들이 그를 만나서 시대가 다문화시대로 가는 게 대세라고 하며 아들 장가보낼 방법을 찾으라고 권유했을 때 우리 가문을 어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친구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 하면서 그때만 보냈어도 5~6년 전 일이니 그만큼 마음고생을 덜 하였을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오죽하면 그랬으랴. 그 친구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사는 동네에서 단 한 체 서 있는 묵은 기와집이 그의 집이었고, 우리 고향 쪽에서는 찾기 힘든 00김씨 12대종택이라고 가문 자랑하면서 특히 안동권문인 나한테는 좀처럼 허튼 소리나 허튼 행동을 보이지 않던 친구였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의 실상이 그런 것을! 종갓집 종손이라 하드라도 멀쩡한 아들 총각으로 늙힐 수는 없는 일이고, 젊은 여성들은 가문이니 양반이니 살림형편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과는 무조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만 하니 부모를 도와 또는 농사가 좋아 농사일을 하는 농촌의 젊은이는 어쩌라 말인가.

오래전에 예견된 문제이고 후유증 또한 이제는 일상화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중에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자마자 잠적하는 여성들도 있고 농촌에 내려와 TV에서 본 한국생활상과 너무나 다른 농촌생활에 동침을 거부하거나 가출을 하는 이들이 속출한다고 한다.

물론 개중에는 건실한 며느리, 한국사람보다도 효심이 깊은 며느리도 있고 억척스럽게 농사일을 하면서 마을 이장을 맡거나 부녀회장을 맡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 또한 젊어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자기도 하며 살아봤지만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다문화란 말이 많을 多자를 쓰지만 다문화의 해석은 다르다는 뜻의 다자로 해석하면 서로 간에 좀 더 쉽게 서로를 이해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른 생각 다른 의식, 다른 습관 즉 다문화가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연환경이며 생활환경이 각각 다르다보니 의식주문화가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같도록 맞춰가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임을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내 친구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6·25사변 61주년에 즈음하여

東雲 권 혁 용(삼육대학교 명예교수)

1950년 6월 25일 (일) 새벽 4시30분, 소련과 중공의 원조를 받아 훈련과 장비를 충분히 갖춘 17만 북한공산군은 수백 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거침없이 38선을 넘어 옹진, 개성, 동두천, 춘천, 안악 등지의 육로와 동해안을 돌아 삼척, 임원진 등지에 상륙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10만으로 훈련과 장비가 소홀한 상태였다. 탱크 한 대도 없고 적의 탱크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6일 옹진반도의 국군 17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송우리 축석고개에서 치열한 방어전 끝에 의정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27일 저녁에는 미아리고개에서 접전이 있었고, 28일에는 수도 서울이 적에게 완전히 함락되었다. 사변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구·영천 부근으로 후퇴하고 낙동강에서 맹렬히 저항하였다. 그로부터 거의 두 달 동안 낙동강 방어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구미 다부동전투와 경주 안강전투, 영천지구전투에서 피아 많은 인력 소모전이 있었다.

UN에서는 사변이 일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부터 서로 앞 다투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하려고 군대와 무기, 탄약, 식량 등을 보내왔다. 그 중 미국·영국·호주 등 16개국은 군대를 보내왔는바 이들을 가리켜 '참전 16개국'이라고 부른다.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북한 공산군이 낙동강 전선에 집결한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격하게 하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UN군 및 한국군을 일제히 북진하게 했다. 이로부터 10여일만인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여세를 몰아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과 청진(함북) 북쪽까지 진격해 가자 그해 10월 11일, 중공군 17개 군단 12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와 장전지구에 야음을 틈타 피리와 꽹과리로 연합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포위함으로써 연합군은 많은 무기를 버리고 철수하였다. 이어서 흥남 철수작전으로 북한주민 10만을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가평지구 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서울까지 내주고 한강 남쪽까지 철수한 날이 1951년 1월 4일이다. UN군 및 한국군은 1951년 4월에 맥아더 원수가 귀국한 후 릿지웨이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으로 맞이한 한편 꾸준히 반격을 가해 다시 38선 이북으로 쳐 올라갔다. 그러자 소련·중공 및 북한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휴전을 제의해 왔다. 이로부터 개성과 판문점에서는 북진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민족의 반대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공산군 대표와 UN군 대표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3년 동안 철의 삼각지대, 백마고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전투 등에서 피아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선 일대에서 전투가 중지되고, 판문점에서는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뒤이어 포로들을 교환했다. 61년 전 6.25사변 당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고 9.28수복이 되기까지 3개월간은 북한군은 남한에 있는 적색분자를 앞세워 남한의 동장급 이상은 인민재판이란 명목 하에 총살하고 강제 노역과 북으로 압송해 갔다. 1.4후퇴 시에는 나도 집안 식구들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중공군의 남침이 우리 앞길을 막아 중도에 고향으로 되돌아 왔는데, 그해 겨울 폭격으로 집이 불타버려 한 겨울을 방공호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학교도 폭파되어 5학년 때는 가건물과 야외에서 수업을 받았다.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전투 병력의 손실만 해도 UN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북괴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이 병력을 잃었다. 또한 전쟁기간 중 한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또 북괴는 8만 5천 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남한으로부터 납치해 갔다.

6.25사변이 발생한지 61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남·북은 냉전 상태이며, 이러한 와중에서 북한은 수많은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침투사건, 천안함사태, 연평도사건 등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철저히 대비하고 하루 속히 평화통일의 날이 오도록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연재

국헌공 權伋과 漢文小說

▣ 申 海 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다만 한윤은 조선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자여서 "그의 말을 믿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어르신께서는 잘 살피소서."말을 마치자 옥구슬 같은 원망의 눈물이 샘솟듯 하였다. 홍립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쳐 주며 말하였다.

"괴로워하지 마오! 그대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내 또한 잘 생각해보겠소."

홍립은 하지만 자신의 일족을 모두 죽인 원수를 생각하면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첩을 생각하면 또한 조금도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지라, 가슴속에서 보복과 사랑을 두고 번민하며 몇 날이 지나갔다. 한윤은 홍립의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의중을 알고는 정색을 하고 감히 나무랐다.

"영공께서 임금과 부모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구차히 빌붙어 목숨을 구걸하는 바람에 온 집안의 혈육이 죽임을 당해 유혈이 낭자하건만, 부귀에 안주하고 계집에 빠져서 눈앞의 쾌락만 탐닉하고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시렵니까? 지금 조선은 쓰러져 가는 형세여서 철기병으로 치면 당연히 대나무 쪼개듯 할 것이고, 저 계림(鷄林)을 취하고 압록강을 쳐서 후삼국을 통일하리라는 예언처럼 조선을 합병할 수 있는 공로도 손 뒤집을 만한 짧은 시간 안에 있는데, 영공께서는 어찌 원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홍립은 그 말뜻을 깨닫고는 마침내 누르하치에게 말하였다.

"조선은 천하의 우수하고 강한 군사가 있는 곳입니다. 강한 활과 긴창, 훌륭한 포와 예리한 검 등이 모두 조선[東韓]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무기 등을 쓰는 굳센 나라이지만, 풍속은 오히려 교활함을 좋아하고 사람을 쓸 때는 권세와 이익만을 좇으니, 사람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일을 당하여서는 회피하고 방관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유능한 자는 자신들의 재능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직접 쳐들어가서 그들을 쓸 수만 있다면, 조선[東土] 전역(全域)의 사람들은 뭇별이 북극성을 향해 읍을 하고 있는 형세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우(虞)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진(秦)에서는 지혜를 펼쳤던 이도 있고, 수(隨)에서는 아첨한 자들이 당(唐)에서는 충성을 다했던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에 능한자를 지휘하고 강한 병사를 훈련시켜, 누르하치의 위엄[天威]을 힘써 받들어 말을 몰아 조선[東]으로 향한다면, 조선에 비록 지혜 있는 자일지라도 명나라[南朝]를 위한 계책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누르하치의 거둠을 입어 영광스럽게 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조그만 보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군사를 부릴 즈음. 청컨대 말을 타고 행렬의 앞에서 인도하는 임시 임금(假王)이라도 되게 해주신다면, 지혜와 용기 있는 자를 거두고 정예군을 뽑아서 10만의 대군을 갖추어 놓겠습니다. 이는 제가 받은 은덕에 보답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천하 통일의 밑천일 것입니다."

이에 누르하치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은 잘못 되었다. 조선[東韓] 사람들은 예절과 의리를 지키는 풍속이 있어 침공하기는 쉬울지라도 복종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옛날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그 힘이 천하를 평정할 만했지만, 당시 고려(高麗)를 심복으로 얻지 못하여 무력을 사용한 지 30년 만에 결국 부마국(駙馬國)의 조건[舅甥之好]으로 강화를 맺는 데 그쳤을 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해도 군대를 나누면 힘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급히 일부 병력[一枝兵]만으로 조선을 정벌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병사들이 계속해서 완전히 함몰시키지 못하면 공연히 시간만 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동을 넘어 중원(中原)을 엿보는 넓은 걸음을 뗄 수 없게 되나니, 단지 작은 이익에 얼빠져 있는 것은 정당한 계책이 아니다. 따라서 동으로는 조건과 화친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싸워 이겨, 연경(燕京)에 진을 치고 앉아서 천하가 모두 모여드는 것을 의당 보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할 뿐이다. 또 옛 사람의 말에, 죽는 날까끼 감히 자신이 군주로 섬기던 이를 노예로 만드는 일은 도모하지 않는다 하였거늘, 그대는 무슨 마음으로자기 나라[本國]를 그렇듯 원수처럼 보는가? 자신의 조국인 고려를 침략하도록 꾀했다가 죽임을 당한 최유(崔濡)의 일이야말로 족히 훌륭한 귀감이니, 그대는 사복(思服)하라!"

홍립은 누르하치를 말로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익으로 유혹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물러나서 소(疏)를 올렸다. 상소 내용에는 조선 군비(軍備)의 단점과 허점을 알려주는 극단적인 말이 들어 있는가 하면, 민심이 흩어졌고 부녀자가 곱고 아름다우며 옥과 비단이 풍부하다는 등의 말도 중언부언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유월의 하늘

권 순 채
(향토문화연구가)

연두빛 산야가
짙은 녹음이 되어
더 높아 보이는 파아란 하늘
마음껏 나르는 새들 보다
더 높은 유월의 하늘

녹색의 들판에
황금빛 보리가 익어가고
텅빈 들판에 모가 논을 빈틈없이 메꾸어 가는 산의
물소리는 더욱 크게 들린다

아카시아 꽃 향기에 모가 심어지면
찔레꽃 향기에 보리 거두고
밤꽃 향기에 콩이 심어지면
석류꽃이 더 붉게 보이는 가운데
짙은 녹음 보다
더 푸른 하늘이
자꾸 짙어만 가다
먹구름되어 장마가 진다

이 달 의 詩

연꽃 피었더라

청하 권 대 욱

이제 꺼지지 않을 등불 하나 밝힌다

수렁에서만 핀다더니
촛불 켠 기도까지 껴안고
사바 아픔 보듬어 가는 꽃송이 하나
갈등의 바람 잦아진 그날
처연한 바램 하나 없어도
빈 걸음 아름다운 길에
인연의 강 흘러도 말없이 피었다

탐욕의 이 바다에서는
한 떨기 荷花이고 싶었는데
번뇌로 따라오는 초가을 그냥 두고
세상의 뒤 그늘에서
겸허한 일출처럼 꺼지지 않을 꽃 피었더라.